



### 소개

바람은 지구의 호흡이다. 바람은 대지와 대지를 연결하고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고 별들의 움직임과 함께하고 우리의 몸 속에 들어와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바람을 재료로 음악과 미술과 기술이 융합하여 만들어지는 또 다른 형식의 미디어 퍼포먼스가 세상의 바람 그리고 데이터이다. 세상의 바람 그리고 데이터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초고속 통신망을 포함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여러 장소의 바람 데이터를 재료로 음악을 연주하고 시각화한다. 방현우 연구팀이 바람을 데이터화하기 위해 개발한 녹풍장치를 이용하여 현장에서의 데이터 송신을 맡는다. 이렇게 한곳으로 모인 데이터는 이돈응의 연구팀에 의해 음악의 형태로 연주된다. 김수정 연구팀은 이를 영상화하여 무대에서 음악과 함께 공연하게 된다.

후원  
서울대학교 연구처

### 프로그램



#### 이돈응

Prelude for "earth, wind and data" (2013)  
본 공연에서 전주곡 역할을 하는 사운드 인스톨레이션으로 제작되었다. 풍관(오르간)과 풍경, 그리고 이를 해체하여 재조립한 '풍경 종', 도자기 접시를 이용한 '접시 종' 등을 위한 알고리즘 음악이 여러 장소에서 오는 바람의 데이터에 의해 컨트롤된다.

#### 김태희, 김미정

Interlude 1 for wind recorder (2013)  
작곡가가 만든, 녹풍기 데이터를 이용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연주장 외부(오스트레일리아)와 내부에서 두 작곡가가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주한다.



#### 유리나

Sooooooooooooom (2013)  
(상황: 손정민, 가야금: 오연경, 아쟁: 김민정)  
작은 풍관-상황으로 붙여넣은 바람, 숨이 아쟁과 가야금을 지난다. 이 소리는 다시 녹음되고 변형되며, 데이터를 통해 구현된 바람과 함께 호흡하게 된다. 한숨, 깊고 얇은 숨, 길고 짧은 숨, 강한 숨과 약한 숨으로 만들어 낼 작은 음악이 될 것이다.

